

'3토'와 평안

제190기

2014년 8월 11일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7월 29일까지 1억 7,257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파룬궁을 박해한 저우융캉의 '집단학살죄'를 철저히 조사

2014년 7월 29일, 전 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저우융캉이 낙마했다. 저우융캉은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 소멸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주도하는 등 반(反)인륜, 흑형과 집단학살이라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저질렀다. 현재 중공 정권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대규모로 강제 적출한 진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전해지고 있다. 저우융캉과 그 배후의 장쩌민과 쟁칭훙, 뤄간 등 원흉이 핏값을 칠저히 청산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파룬궁 박해로 정치 막천을 얻다

1999년 7월, 장쩌민이 '真, 善, 忍(전, 쌍, 런)'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소멸하는 박해를 발동했다. 저우융캉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쓰촨성의 서기로 재임한 동안 장쩌민의 환심을 사고 정치자본을 얻기 위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키라'는 파룬궁 소멸정책을 목숨을 걸고 집행했다. 저우융캉은 중공의 폭력배들을 이익이라는 미끼로 유혹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무고하고 선량한 백성을 흑형, 살인과 실종 등의 수단으로 박해하게 했다. 이리하여 쓰촨성은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수가 가장 많은 지방의 하나가 되었다.

저우융캉은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연좌 정책을 실시해 '부모가 수련하면 자녀를 해고 해직하고, 자녀가 수련하면 부모를 해고 해직하거나 퇴직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 경제력을 끊어버렸다.' 저우융캉은 파룬궁 박해 두목과 골수분자들에게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불법수입을 얻도록 유혹했다. 그들에게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받게 하고, 집을 수색하여 강탈하게 했으며, 기업의 재산과 토지를 강점하게 했다. 이에 따라 많은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불법적인 기구), 국가 보안, 파출소, 향진, 감옥, 노동교양소, 세뇌반 두목들이 피 묻은 횡재를 하게 되었다.

저우융캉은 악독한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함으로써 장쩌민의 신뢰를 얻었다.

정법위원회를 통제하다

2002년, 저우융캉은 공안업무 경험이 전무했지만, 장쩌민의 말 한 마디로 공안부 부장과 당위서기 자리를 차지하고 동시에 중공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를 맡아 정법위원회 서



저우융캉

기 뤄간과 협력해 전국에서 파룬궁 박해를 감행했다.

1999년 6월 10일,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에 장쩌민은 직접 명령으로 '중앙 문화대혁명소조'와 비슷한 '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초법적인 '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대외적으로 중앙 610 사무실이라 칭함)'을 가장 기층까지 층층이 설치해 파룬궁 박해를 획책하고 추진할 중추지휘계통을 건립했다. 나중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가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중앙 방법과 사교 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중공이 바로 진짜 사교이다. 구체적인 논술은 9평 공산당을 참조)', '안정 유지 사무실'이라 부르면서 한 개 기구에 두 개의 간판을 걸고 중공 중앙 직속기구에 포함시켰다.

'610'은 명의상 정법위원회에 종속되어 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정법위원회의 권한 범위도 '610'과 '안정 유지' 직능이 더해지면서 공안, 검찰, 법원, 사법계통을 초월하여 수시로 경찰, 국가 보안, 외교, 재정, 문화, 교육, 위생 등을 포함한 중국의 외교와 내정 각 부문의 일체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장쩌민은 전체 국가기구를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운동에 밀어 넣었다.

박해가 가장 심했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장쩌민 집단은 국민총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파룬궁 박해에 소모했다. 파룬궁 박해로 국고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자 장쩌민은 '공, 검, 법, 사'의 기초건설을 채권투자의 중점으로 삼고, 백성들에게 국채를 팔아 이 구멍을 메웠다.

청산이 두려운 박해 원흉 장쩌민과 쟁칭훙은 2007년 10월의 중앙 17대 회의에서 뤄간의 후임으로 저우융캉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중앙 파룬궁문제 처리 영도소조' 조장으로 임명하고 중공의 최고 정책 결정층인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밀어 넣어 파룬궁

에 대한 소멸적인 박해정책을 통제하고, 박해 정책이 계속 이어지게 했다.

참혹한 살육

저우융캉은 정법위원회를 통제한 이후 줄곧 담화와 공문 형식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법계통을 협박하고 조종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각 지역에 내려가 지휘 감독하며 박해를 가중시켰다. 저우융캉은 올림픽과 세계박람회의 '보안'을 명분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재차 악화시켰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인 2008년 7월 10일, '수도 사회치안 종합관리위원회 사무실'과 베이징 공안국은 '보안고발자'에게 50만 위안의 상금을 준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명단에 열거된 단체는 파룬궁이 유일했다. 밍후이왕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베이징 지역에서 586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되었고, 전국에서 8,037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1월 26일 저녁, 베이징의 음악계 인사 위저우(於宙)와 아내 쉬나(許那)는 연출을 끝내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도중 '올림픽 검문'에 걸려 경찰에 납치되었다. 11일 후, 42세의 위저우는 흑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위저우(於宙)

저우융캉은 있는 힘을 다해 인간성을 상실한 각종 흑형을 만들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사악한 표준으로 삼았다. 허난성 덩펑시 여성 경찰 런창사는 적극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괴롭힌 공로를 인정받아 공안국장으로 승급했다. 저우융캉은 런창사가 응보를 당해 사망하자 그녀를 전국 공안계통 1급 영웅으로 추서했다. 저우융캉은 2005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런창사식 공안국장' 28명, '전국 우수 인민경찰' 956명, '전국 우수 공안국' 49개, '전국 우수 공안기증단위' 456개를 표창하고, 개인과 단체에 5천 위안에서 5만 위안에 이르는 상금을 수여했다.

약물로 파룬궁 수련생을 해치다

뤼간과 저우융캉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100% 전향시킨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소멸적인 정책에 따라 전국의 정법계통에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의약방식과 임상시험 방법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전향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각급 610, 국가 보안, 공안, 감옥, 노동교양소, 세뇌반과 정신병원의 악인들에게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의 생명을 맡긴 것이다.

청두 탐사설계 연구원으로 일하다 병으로 퇴직한 직공 세더칭(謝德清, 69세,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을 회복했다)은 2009년 봄에 신진 세뇌반에서 약물박제를 당해 생명을 잃었다.



세더칭(謝德清)

독립적인 지식인이며 자유기고가인 허웨이화(賀偉華)는 시대의 병폐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정경을 이렇게 서술했다. “그곳에서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폭력구타를 당했고, 차가운 철판 침대에 알몸으로 묶여 약물 주입을 당했다. 주사를 놓거나 코를 통해 고무호스를 위에 삽입한 후 약물을 주입했다. 그 피해자는 고통으로 인해 묶인 두 발이 끊임없이 떨렸고, 뒤집힌 두 눈은 금방 튀어 나올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팔팔하던 정상인이 며칠 사이에 ‘산송장’으로 변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은 정기를 잃었고, 표정이 굳어졌고, 동작이 둔해졌다. 심지어 기억력과 사유능력까지 상실했다…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정경을 보면서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진짜 ‘인간지옥’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었다.”

악당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심하고 은폐되고 교활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처음에는 공공연히 강압적으로 독물 주사를 놓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다가 나중에는 파룬궁 수련생이 먹는 음식물에 몰래 독물을 투입해 석방된지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에 독성이 발작해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인 책임을 피했다. 혹형과 세뇌로도 ‘전향’되지 않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중추신경과 내장기관을 파괴하는 약물을 주입해 독살하는 것은 중공 장쩌민 집단이 육체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소멸하는 일반적인 수단이었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소멸적으로 박해하고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탄압함에 따라 대륙 도덕체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었고, 색정, 마약, 부정부패 등 검고 난잡한 현상이 범람하게 되었다. 악인들이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던 수단을 일반 민중에까지 뻗치자 사회는 정의가 전혀 없게 변했다. 이번 박해가 가져온 도덕 패괴로 사회위기, 생

태환경 붕괴, 경제위기 등이 초래됨에 따라 중국인은 깊은 피해를 받게 되었으며, 중국사회는 ‘절망’에 휩싸였다.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 강제적 출을 주도하다

제일 사악한 것은 정법계통에 있던 저우융캉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주도한 것이다. 보시라이가 라오닝에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장기를 강제 적출한 ‘창의적인 장거’는 뤄간과 저우융캉의 조직적인 주진에 따라 전국으로 신속히 만연되었다. 중공 군대, 정법계통, 의료계통(군 병원, 무장경찰 병원과 지방병원을 포함)은 장기 암거래상과 손잡고 대량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와 시체를 훔쳐 팔아 ‘이 우주에 전례 없는 사악’을 만들어냈다.

저우융캉과 개인적인 친분이 밀접했던 전충칭 공안국장 왕리쥔은 진저우시 공안국장으로 있을 당시 2003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진저우시 공안국 현장심리연구중심’에서 몇 천 번의 이식과 인체실험을 했다고 한 시상식에서 스스로 폭로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수들의 상당수는 ‘대리 사형수’라고 하며 이것은 이미 중공 사법계의 공개된 비밀이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만에서 30만 위안이면 경찰을 매수해 대신 죽일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쉽게 ‘대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이었다.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은 파룬궁 수련생을 ‘대리 사형수’로 알선해 거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 같이 조달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가 적출된 후 처형됐으며,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진짜 사형수는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2012년 4월 17일, ‘파룬궁 박해 주적 국제조직’ 조사원이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정법위 서기였던 뤄간 사무실 장주임’의 신분으로 전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리창춘(李長春)과 통화한 바 있다. 리창춘은 조사원에게 “저우융캉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돌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증거전집(주적 국제 발표)’을 볼 수 있음.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26/280291.html>)

전 세계가 생체장기적출 반인륜 죄행을 토벌하다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중공(중국공산당)에 즉시 양심수와 종교 신앙인, 소수민족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긴급 결의안을 압도적인 투표로 통과시키고, 중공에 ‘즉시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유럽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맥밀리언-스코트(Edward McMillan-Scott)는 이 결의안

이 5억 유럽인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표시했다.

국제인권의 날인 2013년 12월 10일, ‘강제장기적출 반대 국제의사회(DAFOH)’는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의 짜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 세계 5대주, 53개 국가와 지역의 민중 약 15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UN 사무실에 제출했다.

전 세계 각국의 민중들은 공동으로 사악을 주적하고 인류의 양심과 존엄을 수호하고 있다.

2013년 6월 27일, 美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위원장이며 플로리다 공화당 중진인 일레나 로스테티넨(Ileana Ros Lehtinen)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뉴저지 민주당 중진인 로버트 앤드루스(Robert Andrews) 의원은 공동으로 제281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들은 이 결의안을 통해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중공에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장기이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장기이식에 가담한 경력이 발견된 인사들을 기소하라고 미 국무원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중공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박해자의 죄악을 청산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이후 수백만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하며 살해됐다. 셀 수 없이 많은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혹형과 학대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으며, 1억이 넘는 무고한 민중과 그 가족이 전례 없는 재앙을 당했다.

그러나 천리는 분명하다. 이미 하늘이 내린 징벌의 서막은 열렸다.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중공과 그것의 기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박해자는 연이어 응보를 당하고 있다. 한 때 기업을 토했던 왕리쥔, 구카이라이, 보시라이, 리동성, 저우융캉 등 박해자들이 연이어 낙마했고, 장쩌민, 뤄간, 쟁청훙 등 원흉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 철저히 청산될 날은 멀지 않다. 사악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묵인과 종용을 의미하며 범죄와 같다.

역사의 마지막 한 순간이 곧 지나가게 된다. 한 번 지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이 순간에 고귀한 중국 동포들이 파룬궁 진상을 요해하고 신속히 중공의 당, 단, 대 조직(‘3퇴’라 간칭)에서 탈퇴할 것을 바란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자신에게 영원한 유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